초대석

호스피스를 통한 사랑의 실천

노유자
가톨릭간호대학 호스피스 교육연구소 소장

대희년, 새 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 은총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오늘도 여념없이 호스피스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성탄과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본 협회가 맨 처음 창립될 당시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몇몇이 자리를 함께 하며 평소의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바로 호스피스 활동을 알리는 것이라구요. 그 일을 바탕으로 1991년 준비 모임을 해오다가 1992년 3월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협회 회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의 힘으로 어언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맨처음 본 협회가 창립될 당시만 해도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기관이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50개가 넘게 되었고, 가톨릭 기관에서의 호스피스 활동 기관만 해도 약 30여 개 기관들이 고통 중에 있는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활동 단체는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한국 호스피스 협회,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세계보건기구의 협력기관인 가톨릭 간호대학 호스피스 교육 연구소가 활동하고 있으며 인력양성과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제도화 등 의료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직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 사회가 사랑이 메마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과 믿음과 기쁨을 나누는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느끼게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남을 돕는 사람이 될 때, 그리고 봉사의 삶을 살 때입니다. 봉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천상의 기쁨과 통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성장해가는 가장 가까운 길인 동시에 삶의 보람과 환희를 만끽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인 호스피스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다가오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딛는 환자와 가족을 돕는 참으로 보람된 일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요원들은 호스피스에 오랫동안 열정을 쏟으면서 어려운 적도 많고, 아쉬움도 많았겠지만, 무엇보다 호스피스를 하는 이들은 인간내면의 기본적인 존엄성에 대한 생각과 그 수호정신을 통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호스피스의 불씨가 점화된 지 35년의 세월동안 타오른 불꽃이 더욱 활활 타오르기 위해 협회 회원

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해 나가야 할 일이 많지만, 호스피스 정신에 맞는 활동이 이루어 지는지 살펴보고,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며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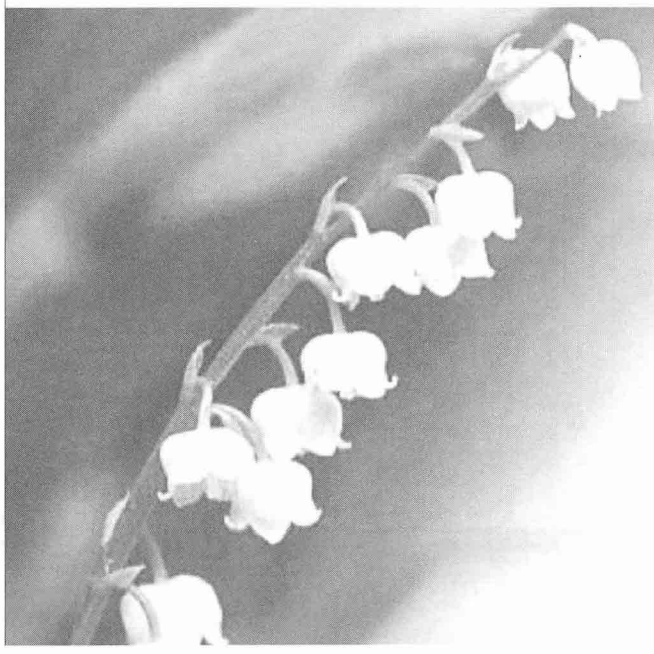
호스피스 활동이 봉사 차원은 물론이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적인 방향으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 협회가 그런 작은 도구의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그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자신의 출발을 돌아보고, 마음을 고쳐 더욱 주님의 모습을 재현하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와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인간사랑, 생명존중인 소중한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호스피스 팀 자신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호스피스 활동에 동참할 길동무를 찾아내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또 다른 바람이 있다면 호스피스 협회의 지부들이 교구별로 생기고, 호스피스의 표준화와 제도적 도입을 위한 노력과 호스피스 기관간의 연락망 체계가 확실히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2001년에는 우리 협회의 목적과 호스피스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호스피스 활동의 깊은 뜻을 더욱 깊이 새겨 예수 그리스도와 한마음이 되어 살도록 협회와 회원 각자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온 회원들이 염원하는 한국형 호스피스 발전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글을 맺습니다.



비움의 아름다움

비움이 아름다운 것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내가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인 님이
나를 비추시기 때문입니다.